

# 韓國企業의 發展過程 —社會·政治·經濟的 影響要因을 中心으로—

## 慎 侑 根

.....(目 次).....	
I. 序 論	3. 1962~1980 : 韓國企業의 跳躍期
II. 時代別 特性	III. 漸定的 結論
1. 1876~1945 : 韓國企業의 導入期	〈參考資料〉
2. 1945~1961 : 韓國企業의 混亂期	

### I. 序 論

한국기업의 歷史는 年淺하지만 經濟成長 목표에 機能的으로 作用한 측면은 팔목할 만하다. 그러나 급팽창한 기업의 成長過程에서 노출된 역기능적 측면도 적지 않았다. 앞으로 한국기업이 더욱 성장·발전하기 위해서는 역기능적 측면은 수정하고, 기능적 측면은 강조함으로써 最適의 한국적 經營스타일을 設計하지 않으면 안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그前提條件으로서 한국기업의 本質的 특성을 체계적으로 그리고 역사적으로 구명할 필요가 있다.

한 나라에 있어서 기업의 特性를 설명해 주는 影響要因이나 그에 관련된 說明變數들은 觀點에 따라서 매우 다양할 것으로 믿는다. 그러나 한국기업의 경우에 있어서는 家族主義的 요인과 社會·經濟·政治的 요인이 그 특성을 형성하는 데 크게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먼저 家族主義的 요인이 한국기업의 특성에 반영되었다고 보는 연구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慎侑根, 1979: pp.1~50 및 pp.28~78 參照). 한국과 같이 所有經營이 지배적인 기업의 조직분위기에서는 家族生活에서의 영향력이 막중하다. 즉, 기업의 초기에 資本의 調達이나 경영활동은 家族關係에서 유도된 것이며 아직도 이러한 경향이 농후하다고 말할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 李朝末葉이전의 家族制度에 대한 연구문헌들을 살펴보면 그 특징은 家父長的 大家族制度였으며, 이를 유지하고 존속시키기 위해서 여러가지 制度와 生活規範을 만들게 되었음을 알 수 있다. 그 중에서도 대표적인 것들을 선별해 보면 ① 長子優待不均等相續, ② 排他主義, ③ 家長의 權威와 “和” ④ 年功序列主義, ⑤ 孝의 개념을 들 수 있을 것이다.

이상의 傳統的家族制度의 다섯가지 대표적 특성으로써 이들과 밀접히 관련된 기업의 특성을 설명해 줄 수 있는 근거는 다음과 같다.

(첫째로), 所有者中心의 經營體制문제를 거론할 수 있다.

실제로 우리나라 기업의 경우 世代交替時 많은 기업의 창업자들이 長子爲主의 승계형태를 취하고 있으며 그 다음으로 次男, 三男 등 직계가족이나 친족 중에서 적당한 後繼者를 물색해 보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만 創業功臣이나 專門經營者들과 복합적으로 經營權의 위양이 이루어지고 있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요컨대 우리나라 기업에 있어서 所有權 내지 經營權으로 압축되는 기업의 承繼는 전통적인 장자우대 불균등 상속에 근거한 家族制度의 특질을 거의 그대로 반영하고 있다.

(둘째로), 전통적인 가족생활에서 발견되는 排他主義와 관련된 企業의 閉鎖的 權力構造와 集權的 組織構造라는 특성을 추출할 수 있다.

우리나라 기업에서 중역을 발탁하는 政策은 크게 둘로 나눌 수 있는데, 하나는 緣故主義의 특성에 근거하여 保守的·閉鎖的·排他的으로 중역진을 구성하는 경우며, 또 하나는 폐쇄적인 경향도 없지는 않으나 거기에만 집착하지 않고 “社會擴大의 原理”에 따라 소유경영자와 특별한 연고관계가 없는 專門經營者까지 중역으로 발탁하는 경우이다.

실제 많은 기업들이 閉鎖的 권력구조를 형성하고 있는데 이들기업이 중역으로 채용 또는 승진시키는 경우에는 오래 전부터 회사에서 일해 온 年功者(功臣)에 대하여 우대를 하는 경향이 절대적이며, 그 다음 중역구성 정책상의 優先順位는 소유경영자와의 血緣關係, 개인적인 特別緣故(軍關係 등), 및 學緣關係로 나타나 강한 보수적 특질을 내포하고 있다. 우리나라 기업의 경우 경영문제의 의사결정은 적어도 제 2 계층인 重役級 이상의 선에서 집중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사실이며, 이러한 이유로 우리나라 기업들은 대체로 集權化된 機能式組織構造를 많이 채택하고 있다.

(셋째로),企業에서 上級者の 리더쉽 스타일과 役職經營者로서의 限界에 대한 문제를 제기 할 수 있다.

우리나라 기업에서 특히 부각되는 문제는 중역들을 포함 上級管理者들이 어떠한 類型의 리더쉽을 발휘하느냐 하는 것으로, 이는 전제적이나 민주적이나, 또는 전통적이나 비전통적이나 하는 식으로 單一線上에서 파악하기보다는 權威와 “和”志向性이라고 하는 兩面性에서 구명할 수 있다. 이러한 리더쉽 스타일과 관련하여 구성원의 年齡, 職種, 종사하고 있는 회사의 規模에 따라 상급자의 權威에 대한 반응의 차이가 나타나지만, 전체적으로는 상급자가 전통적인 권위를 기업조직에서 상당한 경도로 행사하는 것으로 구성원들이 知覺하고

있다. 한편, 우리나라 기업에 종사하는 종업원들은 상급자가 전통적인 특성에 근거한 “和”志向性을 매우 높게 가지고 있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또 많은 종업원들이 이에 대하여 대체로 호의적인反應을 보이고 있다.

근래 우리나라 기업의 경영자들은 이러한 전통적인 리더쉽 스타일과 함께 所有經營者로부터의 疏外感이 늘어나고, 責任經營體制에서 壓迫感이 가중되며, 하급자들로부터의 信賴感이 줄어 들면서 전문경영자로서의 專門能力과 役割을 발휘하지 못함에 따라 중역들이 고용 경영자로 인식되는 경향이 높후하다.

(네째로), 管理的 측면에서 나타나는 年功序列型의 屬人的 人事政策을 한국기업의 특질로 지적할 수 있다.

우리나라 기업에서 보여지는 人事政策의 유형은 전통적인 특성을 거의 그대로 간직한 채로 年功序列型의 기준에 집착하고 있는 경우와 年功序列방식에만 집착하지 않고 成果要素를 가미하려고 애쓰는 경우로 크게 나누어지는데 근래에 들어와 후자의 경향이 눈에 띄게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많은 기업들이 成果要素를 가미한 인사정책의 수립에 관심은 두면서도, 그러한 방향으로 전환하는 데는 적지 않은 시련을 겪고 있다. 특히 “成果”를 측정·평가하는 方法, 예컨대 공동작업을 통해서 이루어진 成果나 業績을 어떻게 개인별로 환산하며 상이한 職種의 성과를 어떻게 표준화시키느냐 하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으며, 동시에 상급자의 주관적인 成果判斷 결과에 대한 구성원들의 반발을 해소시킬 수 있는 방안이 강구되어 있지 못하기 때문에 過渡期의으로 혼선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人事基準과 方針을 정착시키지 못하는 점은 採用에서부터 開發, 報償, 退職에 이르기까지 人事管理의 전영역에서 지적된다.

(다섯째로), 조직구성원들의 行爲的 측면에서, 아랫 사람의 服從心 및 從屬心을 孝의 개념과 관련시켜 치적할 수 있다.

우리나라 기업에 종사하고 있는 많은 종업원들은 年長者와 地位가 높은 사람들에 대하여 매우 높은 복종심을 보이며 따라서 조직생활에서 전통적 規範으로서의 孝의 영향력은 아직도 강하게 남아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기업조직에서 구성원들이 자기 직장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從屬心은 전통문화의 중심적 특성에 근거한 사고방식으로부터 많이 逸脫하는 경향도 있어서, 그 예로 離職率이 높아지는 경향이 주목되고 있다.

→ 우리는 이상에서 家族主義의 요인과 관련된 한국기업의 특성, 즉 ① 소유자중심의 經營體制, ② 폐쇄적 權力構造와 집권적 組織構造, ③ 家父長의 리더쉽과 雇傭經營者로서의 한

계, ④ 年功爲主의 屬人的 인사관리, ⑤ 구성원의 服從的・從屬的 의식구조에 대하여 간략히 살펴 보았다. 이러한 특성 중 어떤 점들은企業家의 成就動機를 크게 자극하는 테 공헌하였다라고 볼 수 있으나, 한편으로 우리는 한국기업의 보다 바람직한 組織活性化를 위하여 專門經營體制로의 겹친적 전환, 狀況適應的 조직구조의 설계, 專門經營者의 고용경영자로서의 한계점 극복, 年功과 能力의 조화를 통한 인적자원관리, 구성원의 組織沒入度 제고라는 다섯가지 기본방향을 신중히 검토할 필요성을 느끼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가족주의적 요인으로부터 파생된 기업의 内面的 특성을 구명하는 것만으로는 한국기업의 전반적인 특성을 설명하는 데 미흡하다. 이에 더하여 한국기업의 특성에 영향을 미친 환경적 요인들에 대한 분석이 또 하나의 중요한 과제로 등장하게 된다.]

本稿에서는 한국기업에 있어서 外面的 특성, 즉 어떤 環境的 要因들이 기업의 形成過程에 크게 작용하였는가를 구명하기 위하여 “歷史的” 接近法을 취하여 보려고 한다. 기업의 外面的 특성을 설명하는 국내외의 많은 문헌들을 검토하여 보면 하나의 역사적 模型을 설정함으로써 企業시스템과 環境變數와의 관계가 構造的으로 변화하는 모습을 찾아보려 함을 알 수 있다. 여기에서도 이러한 개념을 바탕으로 하여 한국의 기업에 어떤 환경적 變數들이 역사적으로 어떻게 體系的인 영향을 끼쳐 왔는지 구명해 보고자 한다.

한국기업의 형성과정에 영향을 미쳐온 환경적 變數들 중 특히 社會・政治・經濟的 매트릭스(socio-political-economic matrix) 속에서 이루어진 影響力은 막중하다. 이 연구에서는 특정시기에 기업의 형성에 영향을 미쳤으리라고 가정되는 주요 이슈(issue)를 중심으로 社會・政治・經濟的 영향력을 알아 보려고 한다. 이러한 영향력들의 總和가 바로 한국기업의 外面性을 露呈하는 指標가 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이 연구에서 歷史的 접근법을 취하여 한국기업의 外面的 특성을 추출하기 위해서는 期間區分에 대한 기준이 필요하다. 그러자면 무엇보다 어느 時點을 한국기업의 出現段階로 볼 것이냐 하는 것과 무엇을 基準으로 하여 기간을 구분할 것이냐 하는 문제가 대두하게 된다. 적어도 기업의 成長史의 측면에서 보면 한국에서는 外勢의 影響, 外勢로부터의 獨立, 自主的 經濟成長段階가 社會・政治・經濟的 매트릭스의 형성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사실 또 이러한 관점에서의 時代區分은 여러 연구자들이 거의 공통적으로 이용하고 있는 것이기도 하다.

이 연구에서는 한국기업의 成長史의 發展段階를 다음과 같이 크게 세 段階로 구분하려고 한다. 첫째 단계는 1876년부터 1945년까지로서 한국기업이 外勢에 刺戟을 받아 설립된 시기이며 民族精神이 作用한 “導入期”이다. 두번째 단계는 1945년 解放부터 1961년까지로서

외국의 援助와 6.25戰爭을 겪으면서 기업성장의 浮沈을 심하게 보였던 “混亂期”이다. 세 번째 단계는 1961년부터 1980년까지 政府의 여러 가지 經濟政策과 관련되어 기업이 急成長하게 된 시기로서 “跳躍期”라 부를 수 있을 것이다. 이 세 단계는 필요에 따라 다시 小期間으로 구분하고 있다.

각 時期別로 나타난 主要이슈, 즉 한국기업의 外面的 특성을 형성하는 데 작용하였던 社會・政治・經濟的 요인들을 추출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발표되었던 이와 관련된 研究文獻과 論說, 雜誌, 年鑑, 기타의 記錄資料들을 광범위하게 조사하였다. 主要資料들은 이 연구의 末尾에 수록한다.

## II. 時代別 特性

### 1. 1876~1945 : 韓國企業의 導入期

1876년부터 1945년까지는 근본적으로 農本國家였던 한반도에 근대적인 기업의 형태가 上陸하는 시기였으며 다음과 같은 환경적 여건을 관찰할 수 있다.

첫째, 政治的으로 이 시기는 韓末부터 日帝의 植民地時代까지에 해당한다. 1876년 외세에 의한 開國과 함께 西歐의 문물들이 진출하는 와중에서 특히 日本은 서구 強大國이 한반도의 地政學의 중요성을 채 인식하기 전에 한반도에 대한 政治・經濟的 침투를 시작하였으며 1910년 韓日合邦을 계기로 식민지화하였다. 이로 말미암아 民族企業이 技術蓄積과 資本蓄積의 바탕 위에 자생적으로 성립되거나 민족주의정신에 입각한 對日抗爭의 도구로서 설립되는 경우가 더 많았다.

둘째, 경제적으로 한국은 農本國家였다. 당시 존재하고 있던 工業의 형태는 극히 초보적인 家內手工業에 불과하였으며, 그것도 국가에서 필요로 하여 설립되거나 농민들이 自給自足을 위해 手工業製品을 만드는 경우가 대반이었다. 이처럼 그 근본이 다져지지 못한 상태에서 開國이 되어 일본상인들이 전출하게 되자 규모면에서나 경영능력, 기술면 등에서 그들과 비교가 되지 못하였고 이에 從屬的인 위치를 점할 수 밖에 없었다.

특히 植民地時代에는 한반도내에서 자주적으로 經濟가 성장하였던 것이 아니고 일본정부의 필요에 따라 한국을 그들의 商品市場, 原料供給地, 戰時體制에서는 兵站基地化하는 등 타의에 의해 기형적으로 이루어졌다. 이처럼 나라의 경제 자체가 일본경제에 종속되어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기업도 독자적인 성장을 이룰 수는 없었다.

이러한 상황하에서 우리나라에서의 근대기업의 成長過程을 사회・정치・경제적인 맥락

속에서 보다 자세히 살펴보기로 한다. 이를 위해서 이 연구에서는 한국기업의 도입기를 江華條約이 맺어진 1876년부터 한일합방이 되기 전까지인 1910년까지와, 韓日合邦을 계기로 日帝의 통치하에 식민지체제로 들어간 1910년부터 1945년까지로 兩分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 (1) 1876年~1910年

이 시기에 한반도에서 근대적인 자본주의체제가 流入되고, 이를 近代企業의 성립으로까지 촉진시키게 된 배경에는 民族精神이 작용한 것으로 평가된다.

즉, 당시에 外勢에 대항하여 西歐文物을 적극적으로 수용하려고 한 몇몇 선구자들의 開化運動으로부터 자국과 영향을 받아 民族精神을 발현하려고 노력했던 기업인 스스로의 成就欲求가 기업의 설립배경을 이루었다고 보아진다. 이러한 企業家精神은 아직도 오늘날 몇몇 기업에 면면히 흐르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에 대해서 간략하게 살펴보자.

한국에 있어서 근대적인 資本主義가 도입된 시기는 1876년 江華條約을 계기로 開國이 이루어지면서 부터라고 할 수 있다. 이 당시 상업의 경우 六矣塵이나 襪負商과 같은 특권적 坐商經營形態나 行商經營形態가 존재하였으며(黃大錫, 1976: pp.14~16 參照), 공업의 경우 織物業, 烟業, 製紙業, 釀造業 등을 주로 하는 가내수공업적 형태가 있었으나 이러한 것들은 그 규모도 작을 뿐더러 아직 기업이라 불리울 만한 특질들을 갖추고 있지 못하였다.

1876년 江華條約을 계기로 大院君 이후 행해지고 있던 鎮國政策이 외국 열강들에 의해 깨어지고 同年 8월 부산항을 시발로 하여 開港이 이루어지게 되자 外勢, 특히 일본의 侵略勢力이 한반도에 진출하게 되었다. 이들은 京城, 釜山, 元山, 仁川 등 開港地나 主要都邑을 중심으로 商權을 장악하고 土地와 鐵山, 漁業權 등을 점차 점거하여 한국을 그들의 商品市場化함과 동시에 식량이나 주요원자재를 일본으로 가져감으로써 한국의 經濟權을 침식하게 된다.

이에 자국을 받아 당시 西歐文物에 일찍 개화되어 있던 일부 선구자들은 社會改革, 國政의 쇄신, 近代教育의 확립, 西歐技術의 도입, 經濟의 근대화 등의 필요성을 느끼고 이러한 일련의 開化運動을 전개하였으며 한국에 있어서 근대적 형태를 겨우 갖추고 있다고 할 수 있는 기업도 이러한 동기와 관련되어 나타났다고 볼 수 있다. 즉, 外國商人이 진출하게 됨에 따라 당면한 난관을 타개하기 위하여 商界의 일각에서는 상업의 組織化 및 상업방법의 革新運動 등이 일어나게 되었으며, 일부 지도층 인사들은 서구의 會社制度를 소개함으로써 회사의 설립을 촉구하는 論說을 괴력하게 되었다(趙璣濬, 1974: pp.37 ~40 參照). 이러한 논설들에서는 會社設立의 필요성과 그 組織・設立節次 등을 상세하

개 소개하여 개항후 民族商人의 회사 설립에 지침이 되었다는 점에서 그 의의를 찾을 수 있겠다.

이와 때를 같이 하여, 1880년대 초에는 商社나 會社와 같은 명칭을 사용한 商業組織들이 나타나기 시작하였다(趙璣濬, 1974: p.37 參照). 물론 이들이 근대적인 기업의 성격을 갖추고 있다고 보기에는 그 組織이나 機能面에서 미약하였던 것은 사실이다.

1894년 甲午更張 이후, 민족기업가들에 의한 기업설립이 상업분야 뿐만 아니라 여러 產業에 걸쳐 활발하게 전개되기 시작한다. 이중 대표적인 분야가 縹織業으로서 한국에 있어서 최초로 企業形態를 취한 것은 金德昌씨가 1902년에 서구식 足踏機를 도입함으로써 전래의 家內工業을 근대적인 工場工業形態로 발전시킨 것이라고 할 수 있다(黃大錫 1976: pp.21~22 및 趙璣濬, 1974, pp.59~60). 그러나 이 공장도 당시 資本金 1만원의 소규모에 불과하였으며, 株式會社形態를 갖는 최초의 民族企業으로서는 당시의 群小手工業者들이 합동으로 조직하여 후일 京城紡織株式會社의 모체가 된 京城織紐株式會社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들은 당시 日本金融機關의 자금지원을 받아서 精米, 鐵工, 煙草, 釀造, 電氣, 製材, 製草 등으로 그 규모가 점점 확대되어 가고, 점차로 紡織, 製絲, 製鐵, 亂打, 硬質, 陶器, 시멘트, 製粉, 麵주, 製油, 硫安, 硬化油, 金融, 製鍊, 石炭液化, 石油精製 등 각종의 대규모공장을 설치해 나가고 있던 일본기업에는 비할 바가 못되었으며, 技術도 유치하고 經營方式도 전근대적 수준이었다.

이렇듯 開化期에 있어서의 민족기업의 生成, 發達이 보잘 것 없었던 것은 다음과 같은 원인에 기인한다(黃明水, 1976: pp.249~253, 趙璣濬, 1974: pp.19~20, 黃大錫, 1976: pp.18~20等 參照).

첫째, 한말의 李祖王祖가 財政의 결핍과 日帝의 내정간섭으로 인하여 민족기업의 육성에 적극적인 지원을 해 주지 못하였다. 특히 민족기업이 民族運動과도 결부되어 있었기 때문에 乙巳條約 이후에는 그 통제가 점차 심해져 갔다.

둘째, 전근대적인 社會制度가 근본적으로 改革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士·農·工·商이라는 전통적인 의식구조가 변혁되지 못하여, 서구에서처럼 기독교적인 清教徒精神에 입각한 정신적 배경이 없어 근대기업이 自生的으로 발달할 수가 없었다.

세째, 民族企業의 설립자들이 外勢의 침략에 자국을 받아서 國力を 배양하고자 하는 民族主義的인 동기에 의해 기업을 설립한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打算이 맞지 않는 경우도 있었고, 資本이 영세하여 일본상인들과의 경쟁이 어려웠다.

네째, 근대적인 訓練을 받은 經營者·技術者들이 없었다. 따라서 회사조직을 갖추었건

개인기업의 형태를 띠고 있건 간에 그 경영방식이 주먹구구식이었으며 기타 企業經營에 필연적인 제반요건이 갖추어지지 못하였다.

이렇듯 外勢의 자극에 의하여 他力으로 시작된 民族企業은 1910년 韓日合邦을 계기로 그 主權을 빼앗김으로써 자주적인 근대기업으로 발달하는 길이 막히고 말았다.

## (2) 1910年～1945年

1910년 8월 日帝의 武力에 의하여 韩日合邦이 된 때부터 1945년 8월 15일 解放이 될 때까지의 36년 동안에 한국기업의 성장에 영향을 미친 要因들과 그 展開過程에 대하여 살펴본다.

### 가. 植民地政策下의 企業

이 시기를 日帝의 한반도에 대한 植民地政策의 변화를 중심으로 하여 구분하면 다음과 같은 3期로 나누어진다.

#### ① 1910年～1919年

1910년부터 1919년 3.1운동 때까지는 日帝의 武斷政治와 朝鮮會社令 등으로 인해 민족기업의 발전이 거의 없었던 시기이다.

1910년 말 당시의 일본인에 의해 설립된 기업과 민족기업과는 그 규모나 수에서 많은 차이가 있었다. 일본인 設立會社는 그 數가 102개, 授權資本金이 964萬圓, 拂入資本金이 471萬圓이었던 것에 비하여 한국인 회사는 21개, 授權資本金 657萬圓, 拂入資本金 228萬圓에 지나지 않았다(朝鮮總督府, 1935: p.116). 또한 1910년 12월 朝鮮會社令이 공포됨으로써 한국인에 의한 회사설립이 크게 억제되어 한국내에서의 自力에 의한 近代工業의 도입은 거의 불가능하게 되었다.

한편 日帝는 1910년 10월부터 8년간에 걸쳐서 대대적으로 土地調查事業을 실시하였으며 이로써 농민들이 일본인을 중심으로한 근대적 地主階級에 예속된 小作人으로 전락하여 농민의 봉합화와 耕作規模의 零細化를 초래하였다. 더불어 貨幣改革을 통하여 식민지적 財政을 확립함으로써 土地資本과 金融資本을 지배하였으며, 이로써 우리나라 경제는 전적으로 일본경제에 종속되는 植民地的 경제체계로 전락하게 되었다.

#### ② 1919年～1931年

1919년부터 1931년 滿洲事變 때까지는 3.1운동의 영향으로 일본이 文化政治로 전환하고, 朝鮮會社令을 폐지함으로써 비교적 많은 민족기업들이 생성되었다.

비록 零細性은 면치 못하였으나 그런대로 수적인 면에서 크게 증가할 수 있었던 것은 강화되어 가던 日帝의 무단정치에 항거하여 거국적인 3.1운동이 일어남으로써 무단정치가 文

化政治로 전환되었기 때문이다. 여기에 1914년 제1차 世界大戰의 종료와 함께 戰中의 過剩投資로 인한 일본경제의 不況이 가세되어 그들은 遊休資本力 시설의 排出口로 한국을 택하게 되었다. 이와 같은 日本資本에 대한 特惠의 여파로 1920년 한국의 工業化를 억제할 목적으로 공포되었던 朝鮮會社令이 폐지되고, 민족기업에 대한 규제도 크게 완화되었다(黃明水, 1976: pp.242~244 및 趙璣濬, 1974: pp.20~26 參照).

이와같아 1920년대에 접어들면서 한반도내에서의 근대적인 企業活動은 비교적 활발하게 전개된다. 會社設立에 있어서도 1920년말 당시 한국인이 설립한 기업수는 99개였으나 1929년 말에는 362개로 3.6배의 증가율을 보였다(윤명식外 1977: p.213). 그러나 이는 당시 한국 내의 전체기업수 중 20.5%에 불과하였으며, 拂入資本金面에서도 같은 기간에 약 1.6배 증가한 데 불과하여 여전히 한국내의 일본인 기업과는 비교가 되지 못하였다.

### ③ 1931年~1945年

1931년부터 1945년 解放까지는 滿洲事變, 中·日戰爭, 太平洋戰爭 등을 치루기 위해 일본이 한반도를 그들의 兵站基地化하였던 시기이다.

1931년 9월 만주사변은 韓國經濟에 있어서 획기적인 전환점이 되었다. 즉, 만주사변을 계기로 일본에는 軍國主義政權이 수립되고 일본의 大陸進出의 前哨基地가 한반도로부터 만주로 옮겨졌으며 조선을 日本工業權에 편입시키고자 한 의도에서 한반도의 近代工業建設을 적극 추진하게 된 것이다(三星소식 : 1979.9). 이로 인하여 한반도내에서의 工產物의 生產額은 1911년에 43.5百萬圓, 1930년에 281.0百萬圓, 1944년에 2,000.0百萬圓으로, 그리고 工產物의 구성비율도 각 10.6%, 23.9%, 34.0%로 크게 증가하였으며(韓一銀行 30年史), 農工併進時期가 형성되었다.

한편, 1938년 中國本土侵略이 시작되자 日帝는 한반도에 대한 戰時經濟體制를 강화시켜 戰時物資生產을 위해서 食糧增產計劃, 產金 5個年計劃, 그리고 조선의 重工業基地化계획을 세워, 한국에 重化學工業이 처음으로 도입되었다. 이러한 배경으로 1920년대에 이어 이 시기에도 民族企業의 수는 비교적 많이 증가하였다. 즉, 1938년 민족기업의 수는 전체의 42.1%까지 성장하여 그 數的인 면에서는 많은 진전이 있었으나 拂入資本金面에서 보면 일본이 88.6%, 한국이 11.4%로 여전히 零細性을 빗어나지 못하였다. 종업원수에 있어서도 200명 이상 고용한 회사 중 87%가 일본인 수중에 있어 그 규모의 영세성을 잘 말해 주고 있다(東洋經濟新報 1942 參照). 이 시기에 한국내에서의 重化學工業의 도입은 이루어졌으나 이는 모두 일본의 대기업들이 장악하고 있었고, 民族企業은 주로 輕工業分野에 집중되어 있어 日帝의 공업화정책에 크게 참여하지 못하였다.

1931년 「重要產業統制法」이 공포되면서 統制經濟로의 전환이 시작되는데, 이러한 統制組織이 대기업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게 되자 資本이나 技術面에서 열악한 위치에 있는 수많은 零細企業이 몰락하게 되었고, 또한 戰時經濟體制에의 협력을 요구하거나 기업의 통·폐합을 단행하여 民族企業의 활동은 크게 위축되었다.

1942년 말 당시, 민족기업 중 授權資本金이 50만원 이상이었던 기업은 겨우 50여개에 불과하였으며, 대기업이라 할 수 있는 資本金 100만원 이상의 기업은 손꼽을 정도였다. 이 당시에 생성된 주요 業種들로서는 고무, 油脂, 製菓, 製鍊, 電力, 製紙, 木材, 시멘트, 重機, 毛織, 유리, 타이어, 紡織, 도자기 등을 들 수 있다.

이상에서 본 바와 같이 한국의 기업사정은 이 시기에 있어서 그 數的인 면에서는 과거에 볼 수 없었던 발전을 하였으나 資本金面에 있어서는 일본인기업에 비해 훨씬 열등한 위치에 있었다. 또 한반도내에서의 경제성장이 國民經濟를 위한 것이 아니었고 일본의 軍事的인 목적에 의해 타의적으로 統制가 이루어지면서 戰爭消費에 충당 되었기 때문에 정상적인 궤도를 밟아 나가지 못하고 기형적인 성장을 이루어 스스로의 독자적인 기틀을 마련하지 못하였으며, 일본경제에 예속된 채 植民地經濟의 특질을 그대로 갖게 된 것이다.

#### 나. 民族資本과 勞動力의 確保

1910년부터 1945년까지의 이 기간 중 특히 1920년대에 民族企業이 생성할 수 있었던 배경으로는 어려웠던 여건하에서도 民族資本과 優秀人力을 투입하였던 企業家精神을 들 수 있다.

첫째, 이 시기에 民族企業에 대한 자본동원의 가능성이 높아졌다. 1918년에 끝난 土地調查 결과, 大地主階級이 등장하였고 많은 수는 아니지만 이들이 民族主義의 동기에서 근대기업의 설립에 참여하게 된 것이다.

둘째, 3.1운동 이후 民族企業에 대한 민중의 기대와 성원이 고조되고 점차 組織化되면서 1920년대 초 朝鮮物產獎勵運動이 시작되어 민족기업이 민중의 절대적인 후원 아래 보호·육성되었다.

세째, 開化期를 통한 近代教育의 보급 및 啓蒙運動의 효과로 근대적 교육을 받은 새로운 인재들이 출현하였다. 즉, 국내에서의 書堂의 급증과 더불어 海外留學生들이 급격히 증차하여 근대적인 교육을 받은 다수의 知識層들이 사회에 진출하게 됨에 따라 3.1운동 이후의 民族企業活動의 기반이 되었다(黃明水, 1976: pp.242~244 및 趙璣濬, 1974: pp.20~26 參照).

이러한 여전으로 말미암아 紡織, 고무, 米穀, 木材, 製絲, 運輸, 醫藥品, 通運 등의 업종이 비교적 활발히 나타났다. 당시의 기업가들의 企業設立趣旨는 여러가지였으며, 예컨대 京城紡織처럼 民族主義的인 동기에 의해 설립된 회사도 찾아볼 수 있다. 京城紡織은 1919년 10월 순수한 民族資本과 技術에 의해 설립된 기업으로 민족독립의 기반을 구축한다는 원대한 계획으로 세워진 대표적 회사이다.

그러나 당시의 기업들이 전부 民族精神에 기틀을 두고 설립된 것은 아니며, 단지 利潤의極大化만을 기업동기로 삼고 있는 기업가들도 적지 않았다. 이들 대부분은 서민출신으로 1920년대에 零細資本으로 출발하여 勤勉과 儉素, 革新的이며 創意的인 성격으로 성공한 기업가들이다(趙璣濬, 1974: p.25).

특히 1931년~1949년의 기간중에 日帝가 大陸侵略을 위해 한반도의 軍需產業基地化를 중점추진하면서 다음과 같은 정책이 시행되었다(許粹烈, 1983: pp.35~89参照).

첫째, 資金面에서 低金利政策을 전개하여, 저축자의 희생위에서 內需產業을 중심으로 良質의 資金을 전개하였고,

둘째, 한국내의 광산물, 전력개발, 공업원료생산에 유리하도록 정책이 입안되었으며,

세째, 한반도의 풍부하고 저렴한 노동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地域間 勞務需給調整策과 강제동원정책을 수행하였다.

그러나 당시의 사정으로 이러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조선산업과 중화학산업에의 민족기업진출이 사실상 불가능하였으므로, 한국기업의 환경적 요인으로서는 그 비중이 적다고 평가된다.

이상에서 볼 때에 우리나라에서의 近代企業은 한말 이조왕조가 그 主權을 상실하고 일본이 그의 필요에 따라 한반도내의 모든 정책을 수행함으로써, 비록 한국에 자본주의체제가 도입되었다고 할지라도 이로써 한국에서의 근대기업이 제대로 성립되었다고 볼 수는 없으며, 식민지 경제체제하에서의 기형적인 도입단계를 맞이하였다고 볼 수 있다.

더구나 기업의 설립 취지가 자본주의 정신에 입각한 利潤動機에 의한 것이었다기보다는 抗日運動을 중심으로 하는 民族主義的 동기에서 창설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기업가들의 經營能力도 매우 미비한 상태였다. 민족의 解放이라는 정신은 앞서 있었으나 환경에 戰略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革新ability이 결핍되어 있어서 어려움을 겪을 수 밖에 없었던 것이다. 이는 朝鮮朝 500여년동안의 土·農·工·商이라는 思潮와 儒學中心의 폐쇄적인 국가관으로 西歐에서 일찌기 발달한 근대문명의 혜택을 받지 못했었다는 점에 기인한다.

결국, 이 시기는 비록 타의에 의한 것이기는 하나 우리나라에 근대적인 資本主義가 최

초로 도입되었다는 점에서 의의를 찾을 수 있으며, 비록 미비하기는 하였지만 몇몇의 民族精神에 투철한 기업가들을 배출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근대적인 한국기업의 導入期라고 칭할 수 있을 것이다.

## 2. 1945~1961: 韓國企業의 混亂期

1945년 한반도는 解放과 함께 自主國家로 새출발을 하였으나, 해방직후의 혼란한 국내정세 속에서 기업의 成長도 자연히 부진할 수 밖에 없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歸屬財產의 拂下나 미국의 원조 등에 의한 資本의 축적으로 미약했던 한국기업으로서는 종래의 商業的 經營形態에서 근대적인 產業資本의 경영형태로 轉換하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그러나 自力보다는 외부에서의 자국에 의한 동기가 대부분이었고 따라서 외부환경의 변화에 크게 의존하지 않을 수 없었다. 특히 1950년 6.25動亂으로 인하여 막대한 피해를 입고 차관이나 원조 등에 의해서 복구해 나가는 과정에서 이러한 측면은 쉽게 관찰할 수 있다.

따라서 1945년부터 1961년까지의 이 시기는 社會·政治·經濟의 혼란 속에서 기업도 그 위치를 제대로 찾지 못하고 前期에서 지적된 특질들을 벗어나지 못하였던 한국기업의 混亂期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이 시기의 기업의 成長過程을 1945년 해방이후 귀속재산의 불하, 미국의 원조 등에 의존하였던 1950년까지와, 6.25動亂으로 인하여 막대한 타격을 입고 이를 外國援助 등에 의해 복구하기 시작한 제1공화국시대의 혼란기로 구분하여 기업의 성장에 영향을 미쳤던 요인들을 살펴보고 이에 대한 평가를 하고자 한다.

### (1) 1945年~1950年

1945年 8月 15日 解放부터 1950년 6.25動亂까지의 시기는 社會, 政治, 經濟의 모든 면에서 혼란기였다. 해방과 더불어 南北은 분단되었으며, 한국의 經濟狀況도 질서를 찾지 못하던 혼란한 상태인데다가 사회적인 혼란까지 가세하여 매우 不安定한 상태였다.

解放前의 한국기업의 성립배경에는 民族精神이 작용하기는 하였지만 대체적으로 日帝의 殖民地政策에 따라 타율적으로 형성되었다. 그들의 殖民地 지배목적은 工業製品의 市場確保, 원료나 食量供給地의 확보, 大陸進出을 위한 경제적·군사적基地의 육성에 있었기 때문에 그들의 경제정책은 한국의 民族資本의 발전에는 도움을 주지 못하였으며, 경영기반의 허약화만을 초래한 것이다.

이러한 民族資本의 劣弱, 產業構造의 불균형, 기업의 非近代化 등의 특질에다 해방이후의 국토의 분단이라는 정치적 요인까지 가세되어 경제가 자립할 수 있는 기반은 더욱 악화되

었다. 특히 사회적인 혼란 속에서 民生安定과 經濟安定을 위한 消費材 중심의 美國援助物資의 대량유입으로 인하여 자립적인 기업의 성장이 오히려 저해되었다.

이와 같은 狀況을 부연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해방전 製造部門의 總資本額의 94%를 일본인이 차지하고 있었으며 특히 技術職의 80%이상을 일본인 기술자가 점하고 있었다. 1944년 당시의 한국인 技術者는 1,632명으로 전체의 20%에 지나지 않았으며(韓鮮經濟年報, 1948: pp.1~100參照), 이도 대부분이 低級 技術者였다. 이는 日帝의 조선인에 대한 技術教育의 고의적인 회피정책에 기인하는데 해방과 함께 일본인이 퇴거하게 되자 공장의 穢動이 어려워져서 生產이 중단되고 失業者가 급격히 증가하게 되었다.

둘째, 日帝에 의하여 南農北工의 分業體制가 구축되어 있었는데, 해방과 동시에 남북으로 분단됨으로써 양쪽 다 불완전한 經濟體制가 형성되었다. 특히 중요한 차원들이 거의 북한지방에 편중되어 있었고 또한 일제의 重化學工業이 興南一帶에 分布되어 있었기 때문에 남한의 경우 공업발전에 미치는 타격이 심각하였다.

세째, 해방직후의 政治的・思想의 혼란을 틈타서 勞使紛爭이 격심하게 발생되었다. 특히 左派勞組인 全評傘下의 龍業은 도합 3,371건에 참가인원수만도 223,000명에 이르렀다(朴縣在, 1971: p.70).

이러한 社會・政治・經濟의 환경 속에서도 한국의 경제가 안정이 되고 근대적인 大企業이 생성될 수 있었던 것은 歸屬財產의 拂下, 美國의 援助, 그리고 마카오貿易경기 등에 기인한다고 볼 수 있다.

#### 가. 歸屬財產의 拂下

1945년 9월 美軍政은 「敵產에 관한 件」이라는 포고령을 발표하여 한국내의 일본인의 財產管理에 차수하고 동년 12월에 「朝鮮內 所在日本人 財產權 取得에 관한 件」을 발표하여所有權을 접수하였다. 軍政은 정부수립 전까지 513개의 기업체를 포함해서 모두 2,258건의 歸屬財產을 불하하고 나머지는 정부수립과 더불어 한국정부에 이양하게 되는데 이중 일부는 國營企業體가 되었고 그 나머지는 민간에게 불하되었다. 그 당시 귀속재산의 拂下價格은 政府查定價格에 비해 훨씬 저렴하게 이루어졌는데 이것도 당시의 격심한 인플레이션을 고려한다면 거의 무료나 다름없는 가격이었다.

이러한 歸屬財產의 불하는 원래 自由企業主義의 경제체제를 지향해서 이루어졌던 것이지만, 실제 불하과정에서 政治權力과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는 특정인에게 불하되고 拂下代金까지도 長期償還, 特惠金融 등으로 조달되었으며 獨占을 허용하고 原資材를 우선적으로

할당하는 등 많은 특혜가 뒤따르게 되어 한국기업이 기업내부의 資本과 技術蓄積에 의한 자주적인 성장에 價值를 부여하기보다는 經營外의 요인에 더 많이 집착하게끔 한 좋지 못한 특질을 심어주게 되었다. 이처럼 歸屬財產을 블하받음으로써 오늘날의 대기업으로의 성장기반을 다진 業種으로는 麥酒, 火藥, 織物業 등을 대표적으로 들 수 있다.

#### 나. 美國의 援助

1945년 해방과 함께 美軍政이 실시되면서부터 戰後 미국의 對共防衛라는 대외정책에 의해서 우리나라에도 원조가 이루어지기 시작하였다.

즉, 독일, 일본, 오스트리아 등을 원조대상국으로 삼은 占領地域行政救護援助라는 이름의 GARIOA(Government and Relief in Occupied Area)원조가 도입되기 시작하였다. 이의 額數는 약 5억弗이었는데 그중 대부분이 식량, 의약품 등 구호물자 중심이었고, 1948년 정부 수립 후에는 經濟再健을 목표로한 ECA(Economic Cooperation Administration) 원조가 본격화하였으나 6.25動亂으로 중단되고 말았다.

이러한 원조는 資本의 축적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던 한국의 실정에서 평가할 때 그 규모는 미약하지만 경제가 회복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해서 近代企業이 성장하는데 영향을 미쳤다고 할 수 있다. 다만 원조가 주로 소비재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미국의 대외정책 방향에 따라 그들의 필요성에 입각하여 이루어졌기 때문에 우리 경제의 自主的인 성장을 유도하기에는 미진하였다.

이후에도 미국을 중심으로 한 외국의 援助는 그 種類나 內容은 달랐지만 계속 이루어졌는데 이는 뒤에서 다시 살펴 보기로 한다.

#### 다. 마카오貿易景氣

한편 이 시기에는 生產施設의 가동불가능 등으로 需要超過現象이 나타나서 마카오·홍콩을 대상으로 하는 貿易業이 성행하였다.

마카오貿易이란 1947년 3월 17일 페어리드호(영국계 선박)가 인천항에 들어오면서부터 시작된다. 이 마카오무역은 중공세력이 남진함에 따라 敗戰後 일본이 한반도에 남기고 간 전략물자를 구하려는 홍콩무역업자들이 중석이나 화약원료, 미군불하 지이프, 중고자동차의 분해부품 등을 가져가고 그 대신에 생고무나 양복지, 신문용지 등을 우리나라에 수출함으로써 이루어졌다. 이로 말미암아 우리나라에서도 처음으로 貿易業이 활기를 띠게 되었으며 그후 이를 계기로 몇개의 大企業이 성장할 수 있는 발판을 만들게 되었다.

마카오무역경기는 1947년 8월 27일 아이비스호라는 홍콩무역선이 부산항에 입항하면서부터 홍콩을 대상으로 하는 무역으로 바뀌게 되었고, 부산이 무역항으로서 활기를 띠게 되

었다(朴炳潤, 1982 參照).

이처럼 해방 이후 6.25 이전까지의 우리나라 기업은 自律的인 성장과정을 밟지 못하고 日帝의 植民地經濟政策에 종속되어 생성되었던 畸型性에 归屬財產의 불하나 援助物에의 의존, 마카오景氣에의 편승 등 企業經營ability이나 管理技術보다는 經營外의 요인에 의하여 생성·발전되는 특질을 나타내게 되었다. 이 때문에 經營風土가 기업 내적인 技術開發이나 創意力, 合理性에 의존한다기보다는 외적 환경과 밀착하여 特惠에 집착하는 경향을 띠게 된 것이다.

또한 기업의 資本蓄積過程에서 土地資本으로부터 產業資本으로 전향한 한두 회사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이 무역업 등을 기초로 한 商業資本主義의 특징을 많이 내포하고 있다는 것(邊衡尹, 金潤煥, 1978: pp.96~97 參照)이 당시의 한국기업의 환경적 특질로서 특기할 만한 점이다.

## (2) 1950年～1961年

1950년 6.25動亂부터 1961년 第三共和國이 出帆하기까지의 시기에 한국기업의 전개과정에 대하여 살펴 보기로 하자.

1950년의 6.25動亂으로 말미암아 归屬財產불하와 미국의 援助, 마카오貿易 등의 도움으로 기반을 잡아오던 한국의 기업들은 企業經營에 필요한 人的 자원이나 物的자원을 거의 파괴당하게 되었다. 예컨대, 당시 남한의 공업 중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던 纖維業은 약 80%의 피해를 입게 되었다.

### 가. 外援의 擴大

이러한 破壞狀態의 한국경제를 부흥시키기 위해서 休戰以後 미국을 비롯한 UN國들의 經濟的 원조가 시작되었고, 따라서 기업도 外援中心의 색채를 띠게 될 수밖에 없었다.

한반도에 대한 外援은(黃明水, 1976: pp.328~329; 邊衡尹, 金潤煥, 1978: pp.377~422 등) 解放이후 GARIOA, ECA로부터 시작되어 동란중에는 다시 戰時緊急救護物資의 형태로 시작되었다. 1949~1953년까지 지급된 ECA와 SEC援助는 生產財部門이 각각 3.4%, 0.77%에 불과할 정도로 消費財에 치중되었다. 1950년에는 CRIK(Civil Relief in Korea)援助가 시작되었고 1951년에는 UNKRA(United Nations Civil Assistance Command in Korea)援助가 시작되었으며 1954년부터는 AID(Act for International Development)援助가 본격화되어 한국경제의 再建과 安定의 기틀을 마련하는 데 도움이 되었다.

再建期의 후반기인 1953년 7월부터 1956년 말까지에는 基幹產業育成을 위한 ICA 및 UNKRA자금과 政府保有外貨에 의한 판유리, 肥料, 鐵鋼 및 火藥工場 등의 건설이 활발하게

진척되기 시작하였다.

그후 이러한 產業生產은 거액의 원조도입을支柱로 하여 순조롭게 이루어졌으나 1957~1958년을 고비로 援助導入이 감소하게 되자 生產活動이 제약을 받게 되었다. 즉, 產業生產은 1957년 15.4%를 정점으로 1958년에는 10.1%, 1959년에는 14.7%, 1960년에는 9.0%로 成長率이 감소되었으며, GNP도 1957년 8.8%를 정점으로 점차 체감하게 되는데 이것은 그 시기에 있어서의 한국경제의 外國援助 依存性을 잘 나타내 주는 것이라 하겠다(朴鼎在 1971: p.73).

이 시기의 한국경제는 外援에 크게 의존하면서 성장한 것은 사실이나 대부분 消費財中心의 원조였기 때문에 몇 가지 문제가 지적된다(朴鼎在, 1971: p.74 參照).

消費財中心의 援助物資導入은 국민의 奢侈性向을 높인 것은 물론 商業部門의 기형적 팽창을 초래하였다. 이와 함께 ICA 3大物資라고 불리우는 原綿, 石油類 및 肥料와 1956년부터 시작한 小麥 및 原綿中心의 PL480 援助는 糧穀生產과 棉花生產面에 결정적인 타격을 주었고 국내석유공업 및 비료공업개발에도 억제요인이 되었다. 따라서 제조업의 구성도 生產財工業을 외연한 채 紡織業과 製粉業만이 크게 확장되어 產業構造의 후진성을 심화하는 환경적 요인이 되었다.

한편 歸屬財產의 물하나 外國援助, 金融特惠 등이 일부 특정 大企業에 집중됨으로써 이와 경쟁관계를 갖는 中小企業들은 점차 쇠퇴하는 과정을 밟게 된다. 이러한 大企業과 中小企業간의 不平等의 확대로 결국 소수의 대기업에 의한 生產의 집중이 이루어져 독과점이 형성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다. 특히 製糖, 製粉, 毛織, 시멘트, 판유리, 플라스틱 등의 업종이 獨寡占을 형성하였다.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외국의 援助는 한국의 경제를 부흥시키는 데에는 기여하였으나 消費財援助에 치중되어 균형있는 工業化로의 進展에는 큰 도움이 못 되었다.

이 시기의 또 한가지 특징은 韓國企業史에 있어서 大企業들이 특히 많이 생성된 시기라는 점이다. 大企業들의 성립과정은 6.25動亂前의 歸屬財產拂下로 인한 기업의 생성과 별다른 차이가 없다. 즉, 기업이 自己資本을 중심으로 經營의合理化를 이룸으로써 成長한다기보다는 각종 特惠에 의존하여 특정기업의 資本蓄積過程이 원조물자의 불하, 特惠金融 등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여기에 가세하여 換差, 인플레이션, 低賃金, 低金利 등으로 막대한 이익을 얻음으로써 援助弗을 만나는 것이致富의 중요한 방법으로 인식되었다. 이에 따라 援助物資와 特惠金融을 따내기 위해서는 정치적인 곡예가 필요하게 되었고, 우리나라 財閥들이 폐쇄적인 家族經營體制를 固守하게 된 것을 이러한 여건과 관련지어 생각할 수도 있다.

이때에 생성된 업종들로는 製糖, 毛織, 化學, 編紡들로서 여기에서 막대한 이익을 얻고資本을 축적하게 되어 당대의 몇개 재벌들이 탄생하게 된다.

#### 나. 戰禍復舊景氣

이와는 별도로 전후의 戰禍復舊景氣를 타고 건설업, 운수업이 발달하였다. 즉, 병참기지로서의 항만시설의 대폭적인 확장, 창고, 도로, 병영, 교량 등 사회간접자본 부문의 광범한 건설사업이 진행됨에 따라 건설군납에 의한 기업의 발전이 크게 촉진되었다. 이로 인해 다수의 기업들이 政界와 밀착되면서 50年代의 주요공사들을 거의 獨占하여 성장하게 되었다. 한편 건설군납 외에도 군수품의 수송계약 등의 용역군납도 활기를 띠면서 이루어졌다.

결국, 이 시기는 資本의 蓄積이 미약하였던 한국의 기업으로서는 資本蓄積의 기회가 되어 비로소 종래의 商業的 경영형태에서 근대적인 產業資本의인 기업경영형태로 전환하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다. 그러나 이처럼 資本이 축적되는 과정에서 지하경제에 의존하는 特惠가 개입되어 기업경영에 있어서의 自主性을 정부에 대한 依存性으로 代置하는 기업특질을 야기시켰다.

이 시기에 등장한 韓國近代企業의 特質을 평가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소위 대기업의 형성이 歸屬財產拂下나 外國援助 등과 정부의 特惠와 결합되어 나타남으로써 기업내부적인 資本蓄積을 통한 성장이라기보다는 外部依存의이고, 商業資本主義의 流通上의 이익을 통해서 자본축적이 이루어지게 되었고,

둘째, 기업의 經營管理風土가 革新이나 技術開發보다는 經營外的인 능력에 좌우된다고 생각하는 잘못된 경영풍토가 조성 되었으며,

세째, 이처럼 政治와 유착된 상태에서 기업이 운영됨으로써 폐쇄적인 家族經營體制가 확립되어 排他性을 띠게 되었고 기업의 社會的 責任의 수행이나 國民經濟的 기능은 도외시되었으며,

네째, 消費財中心의 外國援助物資의 영향으로 기업이 製糖, 製粉, 編織 등의 輕工業分野에 치중되어 있어 原料의 對外依存성이 심화되었고, 對內不均衡의 확대라는 사회·경제의 構造的 모순으로 나타났으며,

다섯째, 대개의 大企業들이 商業資本의in 流通利潤의 획득에만 주력하여 펼연적으로 生產의인 투자보다는 부동산, 外國貯金, 貴金屬 등의 投機性을 추구하는 경향을 갖게 되었다.

#### 3. 1962~1980 : 韓國企業의 跳躍期

한국경제는 休戰後 7년간 지속적인 外援에 힘입어서 安定的 단계를 누렸으나, 그 이후

는 豐作으로 인한 穀價의 폭락, 이로 인한 農村經濟의 파폐, 消費材產業 편중으로 인한 奢侈風潮 및 國際收支의 악화 등 여러가지 사회·경제적 문제가 노출 되었으며, 이에 外援의 격감까지 겹쳐서 국내경제는 침체기를 맞게 되었다. 또한 자유당 말기의 政治的 불안까지 가중되어 결국 4.19, 5.16이 일어나게 되었다.

1962년부터 1980년까지는 한국기업이 政府主導의 經濟施策과 海外貿易의 호조에 힘입어 대기업으로 급팽창한 시기이다. 즉, 경제개발 5個年計劃을 위시한 政府의 이니셔티브 行使와 적극적인 借款導入, 重化學工業 育成施策, 輸出드라이브 정책, 월남戰으로 인한 특수경기, 中東進出 등의 여건 가운데 오일쇼크의 위기를 넘기면서 세계의 대기업들에 비견할 수 있는 外形면에서의 대기업들도 다수 등장하였다. 그러나 經營理念의 뒤풀, 財務構造의 취약성, 기술기반의 미비 등의 문제는 계속 나타나고 있어, 합리적 경영, 장기적 경영, 전략적 경영의 수준까지는 못미친 것으로 평가된다.

이하에서는 1962년부터 1971년까지의 제1,2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기간과 1972년부터 1980년까지의 제3,4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기간으로 구분하여 한국기업에 영향을 미친 環境特質들을 살펴보고 평가하고자 한다.

#### (1) 1962年～1971年

이 시기에 한국기업이 성장하게 된 企業環境에는 다음의 네가지 요인이 크게 作用한 것으로 지적된다.

##### 가. 政府의 이니셔티브 行使

1962～1971년은 이제까지의 自由企業主義의 정책이 경제개발 계획 등을 통하여 「指導반는 資本主義體制」라는 이름아래 政府의 이니셔티브에 의한 開發政策으로 전환된 시기이다 (林鍾哲, 1975 : pp.1～21 參照).

1962년부터 시작된 제 1 차 經濟開發計劃의 기본목표는 “모든 社會·經濟的 악순환을 과감하게 시정하고 自立經濟의達成을 위한 기반을 구축”하는 데 있었으며, 기본방침으로 ①電力, 石炭 등의 에너지 供給源의 확보, ②農業生產力의 증대, ③基幹產業의 확충과 社會間接資本의 충족, ④遊休資源의 활용, ⑤輸出증대를 주축으로 하는 國際收支의 개선, ⑥技術의 진흥 등에 중점을 두었다. 그 결과, 에너지 供給源으로서 精油工場의 건설이 촉진되어 이후原油의 도입과 內需의 증가로 인하여 오늘날의 규모로까지 발전되었으며, 化學肥料工業部門에 있어서도 제3, 4, 5 肥料工場이 건설 되었고, AID借款으로 3개의 시멘트공장이 건설되는 등 基礎化學工業의 기반이 조성되었다.

제 1 차 계획기간 중에는 연평균 成長率이 8.3%에 달하였고, 특히 산업별로는 鐵工業의

성장에 진전이 있어 產業構造가 개선되는 등 量的 성장은 있었으나(邊衡尹, 金潤煥, 1978: pp.632~638 參照), 基礎工業의 미약, 投資財源調達體制의 미비, 食糧自給의 실패와 함께 農業開發의 부진 및 富와 所得의 분배과정에서의 편중 등 몇가지 문제점들이 지적된다. 1967~1971년의 제 2 차 경제개발계획은 이같은 제 1 차계획에서의 문제점을 補完하는 뜻에서 작성되었다. 그 기본목표는 1980년대까지 완전한 自立經濟體制를 갖춘다는 장기목표 아래 그 장기개발을 위한 하나의 過程으로서 產業構造를 근대화하고 自立經濟의 확립을 더욱 앞당긴다는 것이었다. 이를 위하여 ①食糧의 자급자족, ②鐵鋼・機械 및 化學工業에 중점을 둔 공업의 高度化, ③輸出增大와 輸入代替에 의한 國際收支의 개선, ④雇傭增大와 인구팽창의 억제, ⑤國民所得의 향상, ⑥技術水準과 生產性의 제고 등을 기본방침으로 삼았다. 그 결과 기계, 철강, 화학 등의 부문과 기존의 시멘트, 정유, 工業部門이 확충되었으며, 통신, 자동차, 전자, 폴리에스텔, 아크릴공장 등이 설립되었다.

제 2 차 계획기간 중에는 연평균成長率이 10.5%이며, 산업구조면에서 農林水產業 28.9%, 鐵工業 22.8%, 社會間接資本 및 기타 서어비스業 48.3%로서 공업화를 지향한 산업구조정책을 보여준다. 특히 제 2 차 계획기간 중의 중요한 경제정책 및 조치들은 다음과 같다.

1967~1970년 사이에는 中小企業 육성 시행정책이 발표되어, 중소기업 專用 工業園地건설 및 協同組合을 통한 共同產業의 확대와 함께 중소기업을 수출위주로 전환하려는 시도로서 輸出品 生產指定業體가 대거 설립되었다.

1968년 11월에는 資本市場育成方案이 제정되어 기업의 公開 및 株式分散을 촉진하여 기업에 대한 국민의 적극적인 參與와 資本調達을 촉진함으로써 본격적으로 차본시장을 육성하고자 시도하였으며, 그 결과 기업공개를 통한 上場會社가 크게 늘어 났다.

1969년에는 石油化學工業育成計劃, 電子產業部門의 진흥법안과 함께 1970년의 造船工業振興計劃, 鐵鋼工業育成方案 등을 시행함으로써 화학, 전자, 자동차, 제철분야에서 많은 기업들이 증설 또는 신설되었다.

1971년에는 企業體質改善을 위한 金利引下가 시행되었고, 특히 輸出主導產業이었던 纖維業部門이 계속 성장하게 되었다.

#### 나. 借款 및 對外與件의 作用

이 시기에 投資財源調達을 위해 海外로부터 막대한 借款을 도입함으로써 高度經濟成長의 기틀을 마련할 수 있었다.

1959년 시멘트 工場의 시설확장을 위한 214만弗에 이르는 DLF(Development Loan Fund; 開發借款基金)借款을 도입하였던 것을 시초로 해서 1969년 말 당시 22억 9천만弗의 外國借款

을 도입하였다. 1965년 6월 韓日國交正常化措置와 때를 같이 하여 民間 部門에서의 商業借款이나 外國人投資도 크게 확대되었다.

그러나 1965~1969년 사이의 商業借款의 비합리적 운용 때문에 1970년 들어 商業借款企業 가운데 경영이 不實化하는 사례가 속출하게 되었고, 정부가 특별대책을 마련하는 등 商業借款보다는 直接投資 우선정책을 추구하게 된다(邊衡尹, 金潤煥, 1978: p.370 參照).

한편, 1960년대의 한국경제는 高度成長의 기틀을 달성하기 위해서 投資財源調達에 있어 40% 이상을 外債에 의존함으로써 自立經濟의 기반을 더욱 약화시켰다. 國內遊休資本을 생산적으로 활용하는 內資動員體制의 구축, 산업간 均衡的 발전으로 대표되는 內包的 공업화보다는 外債依存的 공업화를 추구함으로써 國際收支의 악화, 기업의 不實化 등의 여러 문제를 더욱 고질화시켰다(邊衡尹, 金潤煥, 1978: pp.647~650 參照).

이 같은 경제정책의 배경에는 商業資本主義의 경영체질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民間企業 자체의 創意나 革新에 의해 이루어지기보다는 정부의 計劃的 이니셔티브에 의한 外資 및 業種配分의 방식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기업이 政府依存의 성향을 띠게 되었다는 것이다. (大韓商工會議所, 1980: pp.76~77 參照).

1960년대 말에는 政府支拂保證借款業體의 代拂現象이 발생함으로써 기존의 外資導入政策에 허점이 표출되기 시작하였다. 즉 45개 外資業體의 内·外投資比率은 1:2 정도로 이같은 内·外資의 불균형은 원리금상환의 난관과 함께 借款企業의 不實化문제가 대두되자 1969년 5월에는 不實企業體整理班이 설치되어 다수의 不實外資企業이 정리되었는데, 이러한 不實企業들의 財務構造는 自己資本에 비해 외자를 중심으로 한 높은 他人資本 의존성이 그 특징으로 지적된다. 自己資本의 바탕이 없이 시설확장 등을 위해 무리한 他人資本調達을 하였다는 것은 환경변화에 대하여 戰略的 적응을 할 수 있는 專門經營者가 없었다는 점과 함께 產業資本家, 商業資本家보다는 政治依存의 자본가라는 한국기업의 특질을 잘 설명하여 준다.

이처럼 外資를 주축으로 한 企業經營, 國內資源 및 既存企業과의 관계가 무시되는 등 事業妥當性의 결여에서 초래된 파임시설, 과당경쟁 등의 경영을 不實化시키는 요소와 함께 新規業體에 대한 政府의 특혜적 金融支援은 한국기업경영을 허약케 하는 환경적 요인으로 지적된다. 해방 이후 지금까지의 歸屬財產 불하와 援助物資 및 借款 등의 배분과정을 통하여 경영이 곧 特惠拂下와 特惠金融를 취득하는 것이라는 풍토와 함께 관권과 유착하려는 기업성향을 형성시켰고, 결국 地下經濟의 조성, 特惠指向의 官依存性 등은 기업환경의 특질을 초래하는 主因으로서 전전하고 합리적 기업활동을 저해하는 한국기업의 특질을 형성

시킨 것으로 평가된다.

#### 다. 越南戰 特需景氣

1964년 9월부터 시작된 韓國軍의 越南派兵을 계기로 한국기업의 對外貿易環境에는 월남전 特需景氣의 가능성성이 대두되었다. 즉 월남전에 소요되는 軍需物資의 일부를 한국이 공급한다고 할 때, 면직물, 자동차 타이어, 철강재의 일부품목은 당시 미국이 그 대부분을 發注하고 있던 日本產과 비교하여 경쟁력이 있었던 것으로 평가된다.

그러나 면직물을 비롯한 軍需物資의 일부 품목과 합판회사, 목재회사, 해운을 비롯한 運送會社 등만 월남전 特需景氣의 직접적 혜택을 누렸을 뿐이다. 미국으로부터의 糧穀의 延拂輸入과 國內外의 전반적 好景氣에 편승하여 상당수의 製造業體가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은 그 간접적 혜택으로 평가된다.

越南戰 特需景氣는 1962년부터 1971년간의 한국기업의 對外與件으로서 그 성장에 도움이 되었으나, 이 같은 환경의 유리한 측면을 충분히 활용하였는지는 논란의 대상이 될 수 있다.

#### 라. 經濟團體의 活動

1960년대까지의 한국의 대기업은 대부분이 歸屬財產, 援助 등의 特惠拂下와 特惠金融, 低賃金, 인플레이션 등으로 급성장하였다. 이들은 4.19이후 不正蓄財者로 사회적 책임이 추궁되면서 1961년 5월 28일 國家再建最高會議에서 不正蓄財處理基本要綱이 공포되어 부정 축재재산을 환수 또는 처벌하기로 하였다.

그러나 이는 경제성장을 지향하는 당시의 정책으로 인하여 환수금액이 3次에 걸쳐 대폭 삭감되었고 일부는 공장을 건설하여 그 株式으로 납부하게 하는 등 상당히 완화되었다. 결국 부정축재자들은 「經濟再建促進會」의 발기인이 되었고 이는 「韓國經濟人協會」로 개칭이 된 후 오늘날의 「全國經濟人聯合會」가 되어 다시금 경제활동을 재개하게 된다(東亞日報, 1982. 2. 26.).

이것이 기업인들의 자주적인 활동을 촉진시켜 產業建設・經濟發展에 적지 않게 기여하였다. 즉, 1960년대까지의 外部依存的인 성향에서 어느 정도 탈피하고 外資導入의 對先進國民間交涉・工業化促進・經濟協力委員會의 설치 등 자주적인 노력에 의해서 기업인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게 된 것이다. 한편 해외동포 실업인들에게까지 문호를 개방하여 모국의 경제개발의 일익을 담당할 수 있게 하였다.

결국, 이러한 企業人團體가 생성됨으로써 교육훈련이나 기술개발 등의 문제를 거론하고 해결하는 데 적극적이었으며, 產學協同制度를 수용하는 등 경영의 합리화에도 적극적이었다.

#### 마. 外形爲主의 經營風土

1972년부터 1980년까지의 제3, 4차 경제개발계획기간 중의 企業環境의 특질에는 기업들 간에 만연되었던 外形爲主의 경영풍토를 지적할 수 있다.

정부의 이니셔티브로 시행된 여러가지 혜택과 지원조치들은 성장에 대한 평가를 의형적 기준에 의해 행하는 것이었으며, 따라서 기업들도 단기적으로 정부의 조치들에 대하여 실질적 內實을 다진다기 보다는 형식상의 報告要件을 충족시키려는 풍토가 企業經營環境의 특질로서 지적된다.

이러한 形式的 경영방식으로 기업들은 경영의 실질적合理화를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겉으로 나타난 형식을 존중하고, 經營原則을 경시하여 適當主義내지는 要領主義에 따른 경영에 급급하지 않을 수 없게 된다. 이렇게 되면 자연히 경영에 필요한 專門性이 결여되고 公私分別基準이 결핍되게 된다(黃一清 1982: pp.47~57 參照).

이 시기에 나타난 한국기업의 형식적 경영방식의 특색으로는 기업인들의 自己經驗 위주의 경영방식을 들 수 있다. 기업인들이 근면·겸소성으로써 기업을 이룩하였기 때문에 합리적인 경영방식보다는 과거의 경험에 의존하는 經驗主義的 사고방식에서 벗어나지 못한 經營觀을 고수하였으며 합리적 計劃보다는 직관적 판단에 의존하는 경향이 이 시기의 경영환경의 특질로 지적된다.

따라서 이 시기에는 近代的 경영시스템이 미비될 수 밖에 없었다. 우리나라 대부분의 기업들은 合理的, 長期的, 戰略的 사고와 예측에 의한 경영이 아닌 경영자의 企業外의 요인에 의한 충동에 의한 사업개시, 특히 정치권력과의 유착에 의한 경영방식을 담습하였다. 援助나 借款의 특혜, 여기에 덧붙여 銀行의 편중적인 특혜금융, 만성적인 인플레이션, 정부의 輸出支援金融에의 의존 등의 이익을 얻어 급성장하는 것이다. 따라서 기업가들이 기업의 효율적인 경영에 관심을 쏟기보다는 經營外의 요인에 더욱 집착하는 기현상을 초래하게 되었다. 한편 이 시기에는 경제개발계획하에서 政府主導型으로 경제성장이 이루어져 왔기 때문에 기업인들 스스로의 합리적 판단에 의한 投資決定이 이루어지지 못했다. 즉, 정부의 지원과 규제가 기업의 방향을 유도하고 지시하는 역할을 담당하여 기업인들은 危險을 계산하지 않고 전적으로 정부에 의존함으로써 스스로 計劃機能을 퇴보시키게 되었다. 이러한 문제점들은 고도의 技術과 資本을 필요로 하는 重化學工業에서도 심각하게 드러난다. 재벌그룹들의 經濟性을 고려하지 않은 경쟁적인 투자로 인하여 需給의 불균형이 초래되고 규모의 경제에 따른 이점보다는 과잉 투자로 인한 投資資源의 낭비를 초래하는 경우도 없지 않았다(大韓商工會議所 1981: p. 51).

(2) 1972年~1980年

한국의 企業環境은 第1,2次 經濟開發計劃을 통하여 기업의 量的 성장의 기반을 조성하는 데에는 성공하였으나 企業經營體質의 近代化問題에는 큰 진전이 없었으며, 1969년의 金融緊縮이라는 基調로 전환되면서 특히 중요한 문제로 인식되어졌다.

따라서 第3次 經濟開發計劃(1972~1976)은 조화된 成長과 安定, 均衡의 추구, 產業構造의 高度化와 國際收支의 개선 및 主穀의 自給, 地域開發의 균형을 기조로 채택한 것이 특색으로 지적되는 반면, 과거의 제1, 2차 경제개발계획의 과정에서 정착된 기업환경의 확대라는 방안을 적용함으로써 특히 海外依存度가 심화된 것으로 평가된다.

제3차 경제개발계획 기간중에는 연평균 成長率 10.9%를 이룩하였으며, 특히 鐵工業부문이 20.3%의 성장률을 기록함으로써 1차산업, 2차산업 및 3차산업의 構成比가 23.9% : 31.9% : 44.2%로 개선되었다(邊衡尹, 金潤煥, 1978: p.653). 그러나 3차 계획기간 중에도 內包的 產業構造가 미흡한 기반 위에서 輸出主導型의 對外指向의 고도성장정책이 기업환경을 주도하였으며, 自立經濟를 목표로 설정하면서 이를 지원하기 위하여 外資에 의존한 投資財源調達의 방법을 추진함으로써 外債依存의 특성과 慢性的 國際收支의 악화 등 기존의 문제점들은 상존했던 것으로 지적된다(邊衡尹, 金潤煥, 1978: pp.656~659 參照).

1977년부터 1980년까지의 제4차 경제개발계획은 국가의 항구적 安全保障과 國民生活의 양적·질적 향상이라는 목표 아래 成長과 社會開發의 기조를 채택하였다. 특히 기존의 自立經濟의 확립을 위한 投資財源의 国내조달과 國際收支의 균형을 이룩하기 위한 시도가 특색으로 지적된다. 4차 계획기간중에는 철강, 석유, 비료, 시멘트, 기계, 전자, 조선 등 重化學工業部門을 중심으로 공업화전략이 이루어지게 되었으며, 國際競爭力 강화를 위한 能率向上과 技術開發을 추구하는 기업환경이 조성되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1972년부터 1980년까지의 기간중에는 1·2차의 石油파동(oil shock)과 함께 資源내 셔널리즘이 대두되었고, 특히 제4차 계획기간중에는 기존의 自由貿易基調에서 점차 保護貿易基調로 전환되어 海外依存性이 높은 한국기업환경의 특색에 비추어 볼 때, 심각한 타격을 받은 것으로 지적된다. 또한 세계적 인플레이션 현상의 慢性화와 實質所得의 감소는 소비를 억제하는 한편 高金利정책의 실시를 유발하여 投資需要가 크게 억제됨으로써 전체적으로 성장의 鈍化現象을 초래하게 되었다.

다음에는 1972년부터 1980년까지에 보이는 한국기업의 특성에 영향을 미친 환경적 요인들에 대하여 살펴보기로 하자.

#### 가. 企業集團 위주의 經濟開發政策

이 시기에 한국의 大企業들과 企業集團들은 정부의 지원과 각종 특혜에 힘입어 독과점을

형성하게 된다. 독과점의 형성으로 技術開發 측면에서의 有利, 규모 경제의 달성을 등 긍정적 측면도 있으나, 경제적으로 消費者 잉여의 감소, 資源의 비효율적 配分등의 문제점과 함께 사회적으로는 독과점 과정에서 야기되는 각종 非理로 인하여 기업의 社會的 責任에 대한 논란을 초래하며, 또한 기업의 政治依存의 성향을 가중시키는 부정적 측면도 있다.

특히 신규업체의 進入을 막으려는 목적하에 정치적 수단이 강구되는 한편, 企業集團 위주의 경제개발정책에서 中小企業部門의 약화를 초래한 것도 문제로 지적된다. 또한 自己資本의 축적보다는 他人資本과 政策金融에 의존하여 기업규모를 확장시키고, 뚜렷한 成長戰略보다는 정부정책에 맞추거나 시너지(synergy)효과를 발휘할 수 없는 분야에의 진출을 추구하였으며, 부족하나마 조달된 타인자본 중 상당부분이 타기업을 합併한다든가 부동산 등의 투기목적에 사용되는 역기능이 심각하게 지적된다.

이같은 기업집단의 역기능적 측면에도 불구하고 閉鎖的 경영은 그대로 답습되었는데, 기업집단의 株式公開는 별 진전이 없었으며, 기업집단내의 요직은 創業主와의 緣故關係에 의하여 所有權으로써 專門經營者の 참여가 크게 제약되었고 「소유와 경영」의 同一視 현상이 기업의 특질로 지적된다.

따라서 이러한 企業環境特性에서는 정부의 企業體質改善政策이 예상한 효과를 거두기 어려운 것으로 평가된다. 즉, 정부는 1972년 8월 私債凍結措置를 발표하여 사채압박을 받아오던 기업의 부담을 완화시키려고 시도하였고, 企業公開促進法을 공포하여 自己資本과 直接金融 중심의 財源調達體制로 유도하였으며, 과거 經工業中心의 輸出產業化政策에 注力함으로써 중간재 및 생산재수요의 증가와 공업구조면에서의 협약성이 드러나게 되자, 1973년에 重化學工業建設計劃을 확정하고 機械工業育成長期施策方案을 마련하였다. 그러나 기업들은 政治依存의 성향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政策金融을 예상하여 危險(risk)에 대한 신중한 고려 없이 과열경쟁과 중복투자를 실시하는 등 바람직하지 못한 형태를 보임으로써 여러가지 政府의 企業體質改善政策에도 불구하고 그 효과가 예상한 수준보다 적었다고 평가된다.

#### 나. 金融媒體의 利用

우리나라의 경제개발과정에서 自主的 자본축적보다는 他力에 의한近代化 조치들이 주류를 이루었으며, 따라서 대부분의 기업들은 그 成長過程에서 金融媒體의 활용에 초점을 맞추었던 것이 1972년부터 1980년까지의 기업환경의 특징이다. 즉, 기업의 절대적 自己資本의 빈곤을 해결함에 있어 金融媒體로부터의 借金經營을 중요한 도구로 삼았다.

특히 기업집단들은 이미 1980년 이전부터 短資會社, 保險會社, 證券會社 등 第2金融圈에 진출하였으며, 특히 시중은행의 民營化와 함께 대기업들이 시중은행의 大株主로 등장하는

현상이 나타나는데, 이는 한국의 대기업 또는 기업집단들이 일본의 경우와 같이 綜合商社를 기점으로 金融媒體와 大規模生產體制를 갖게 됨으로써 시너지효과를 발휘할 수 있게 되었다는 긍정적 측면과 함께 기업인들이 기업을 個人欲求充足의 수단으로서 私有物視하는 부정적 측면을 보여주고 있다.

기업은 利潤動機에 입각한 經濟性追求와 함께 사회의 便益增進에 기여하는 社會性을 동시에 추구해야 한다는 관점에서 볼 때, 대기업이 金融媒體를 지배함으로써 사회 및 주변환경에 대한 영향력이 대폭 증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기업의 사회성을 크게 인식하지 못하였고, 특히 기업을 私有物視하는 태도를 버리지 못하였다는 것은 앞으로 개선되어야 할 기업환경의 특질로 지적된다.

#### 다. 輸出드라이브政策과 綜合商社의 登場

한편 1973년 오일쇼크 이후 세계의 경기가 침체되고 선진국에서 自國의 經濟를 보호하기 위한 「新保護貿易政策」을 실시하게 됨에 따라 輸出政策에 큰 피해를 입게 되고, 국내적으로 低利輸出金融과 같은 특혜적 조치를 마련함으로써 輸出을 촉진시키고자 하였으나 결과적으로 輸出業體間의 과다경쟁을 야기시키게 되었다. 또한 정부의 70年代後半 100억弗達成이라는 목표를 실현하기 위한 방안으로써 1975년 일본의 總合商社制度를 본따 綜合貿易商社基準을 제정하게 되었다(趙東成, 1981: pp.21~26 參照). 즉, 1975년 5월에 12個社가 綜合商社로 지정을 받게 되었는데, 그후 지정요건에 미달되거나 기업이 倒產됨으로써 자격을 박탈당하고 1980년 말 현재 10개의 종합상사가 남아 있게 되었다.

이 綜合商社가 국내경제에 미친 공적으로는 國內經濟發展의 원동력인 輸出의 주도機關으로서 中進國으로 성장한 우리나라의 海外市場에 대한 전초기지가 되어, 綜合貿易商社의 그 효율성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그러나 公正性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평가가 나오고 있다(趙東成, 1981: pp.105~109 參照).

#### 라. 中東붐에의 便乘

1972년부터 1980년까지의 우리나라 기업환경의 특징 중에는 中東붐에 편승하여 우리나라 기업들이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맞게 되었다는 점을 지적할 수 있다.

建設業을 중심으로 中東에 진출하고, 후에는 단순한·토목공사를 통한 고용인력 증대효과 뿐만 아니라, 造船 및 플랜트 분야에 진출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던 것은 國內의 重化學 분야의 산업을 중심적으로 육성하도록 작용한 환경적 요인으로 지적된다. 특히 중동에서의 收益은 중동 진출기업들을 중심으로 資金供給源의 기능을 담당함으로써 기업규모의 확대를 가능케 한 것으로 평가된다. 물론 특혜금융·등 기업의적인 여건이 크게 작용하기는 하였으

나, 높은 成就動機를 具現할 수 있었던 企業家的 精神, 즉 변화하는 세계경제에 대하여 창조적으로 적응한 과정과 그 근면성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평가를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한편 中東 등 海外地域에서의 과당경쟁, 덤핑受注 등 해외진출의 역기능이 나타나게 된 것도 이 시기이다.

이러한 中東붐을 비롯한 世界市場에의 진출을 촉진시켰던 國際與件의 변화에 민감히 대응할 수 있었던 한국기업의 經營戰略은 오늘날 기업의 國際化時代에 막을 열었던 귀중한 무기였을 뿐만 아니라 앞으로 한국기업의 발전방향에 示唆하는 점이 매우 큰 것으로 평가된다.

1972년~1980년 사이에는 특히 단기적 경영방식과 팽창적 경영방식 등의 企業經營상의 문제가 지적된다.

여기에서 「短期的」 경영방식이라 함은 기업의 장기적 성장을 경시하고 단기적 업적의 제고에 수단방법을 가리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 시기에 있어서 기업의 지도자들이 기업성과를 너무나 諂示하고자 하였고 또 서둘렀다는 것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연 20~30%의 인플레이션이 계속 진행되어 왔기 때문에 연간 40~50%의 外形成長은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하기보다는 오히려 부족하다고 생각해 왔으며, 이 때문에 무엇이나 빨리 이룩해야 한다고 믿어온 것이 일반적이었다(黃一清, 1982: p.58).

이러한 短期的 경영방식은 결과적으로 暴利를 추구하게 만들었는데, 이 시기에 기업인들은 短期利益의 극대화에 집착하는 경향을 보였다. 이는 우리나라 기업의 成長史와도 관계가 있어, 기업으로 하여금 장기적 正常利潤의 추구보다는 단기적 極大利潤의 확보에 급급하게 하였으며, 외형적 성장이 기업인의 평가 척도로 간주되는 企業環境의 특질이 형성된다(大韓商工會議所, 1981: p.52).

또한, 「膨脹的」 경영방식이라 함은 산업이나 기업간의 균형이나 기업내의 합리적인 성장 패턴을 고려하지 않고 무분별하게 外形만을 확장시켰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 시기에 있어서 한국의 기업들은 外形 成長을 목표로 한 까닭에 施設擴張을 至上課題로 삼고 生產力增加에만 전력을 다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黃一清, 1982: p.33).

이 시기에 한국의 기업집단들이 계열화 등을 통해 기업의 經營合理化를 추구하기보다는 그 시기에 유리하다고 판단되는 사업에는 무엇이든지 착수하려는 충동적인 사업방식을 企業特質로 갖게되는 것도 이 때문이다. 즉, 60년대에는 消費財產業을 중심으로 업종을 가리지 않은 채 타기업을 무차별 인수·흡수·합병함으로써 소비재그룹을 형성하고, 70년대에는 소위 백화점식 기업확대를 시도하였다. 이와 함께 일부 주요 재벌들은 신문·방송·TV 등 매스콤까지도 장악하고 있으며 이 시기에 金融媒體 등으로 진출하고 있는 현상은 이같은

기업 환경의 특질과 일맥 상통한다(大韓商工會議所 1981: p.56).」

### III. 漸定的 結論

지금까지 나타난 한국기업의 특성은 한마디로 内面的으로 볼때는 「家族的」 경영방식과 外面的으로는 「依存的」 경영방식이 지배하여 왔다고 요약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가족적・의존적 경영방식은 긍정적인 면에서 다수 기업가들의 사업의욕을 자극하여 기업발전의 원동력이 되게끔 하는 데 기여한 바도 적지 않았다. 그러나 앞으로를 展望할 때 家族的 경영방식의 문제는 “傳統性”과 “革新性”이라고 하는 하나의 連續線上에서, 그리고 依存的 경영방식의 문제는 “依存性”과 “自律性”이라고 하는 또 하나의 연속선상에서 해결해야 할 과제로 등장하게 된다.

즉, 전통적이고 의존적인 경영방식이 반드시 逆機能만을 하는 것도 아니며 서구의 합리적인 경영방식이나 과도한 自律性이 順機能만을 하는 것도 아니라는 것이다. 따라서 한국기업은 전통적이고 의존적인 경영방식을 固守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선진 經營方式을 類型化시키거나 기업의 의사에 일임한 완전한 自由競爭體制로 전환할 수도 없는 딜렘마에 봉착하게 된 것이다. 특히, 딜렘마를 만드는 두 基準들, 즉 傳統性과 革新性, 그리고 依存性과 自律性이라고 하는 것이 둘다 똑같은 가치를 지닐 경우도 있는 것이고, 둘다 완전한 진리가 아닐 경우도 있 것이다, 그 상호간에 補完의이기도 하고 對立의이기도 하기 때문에 이 문제를 신중하게 해결하기 위한 전제조건으로서 한국기업의 内面性과 外面性의 구체적 특성을 추출할 필요가 있게 되는 것이다.

이 연구의 결과에서 보여지는 한국기업의 外面的(依存的) 특성은 ① 政府主導下의 成長, ② 他人資本依存的膨脹, ③ 外勢 및 國際與件의 作用이라고 하는 세 가지 측면으로 압축할 수 있다.

첫째, 한국기업의 外面的 특성으로 현저하게 부각되는 것이 政府主導下의 成長過程이다. 한국기업들은 그간 정부의 이니셔티브 행사에 힘입어 적어도 외형적으로는 大型화를 이룩할 수 있었다. 그러나 기업과 정부와의 관계는 단순히 支援的이고 指導를 하고 받는 관계를 넘어서 기업의 경영방식에 여러가지 영향을 미친 것이 사실이다. 60년대와 70년대에 걸쳐 나타난 기업의 形式的 경영방식, 短期的 경영방식, 膨脹的 경영방식은 기업 스스로가 自律性을 지니지 못한 채 정부의 이니셔티브에 따라 기업을 확장시켜온 부정적인 측면의 부산물이기도 하다.

이제 과거의 기업과 정부와의 관계에서 나타난 특질과 부작용들을 미래의 방향을 추정하여 앞으로의 변화에 대처하는 자세로 분석하는 것이 요구된다. 企業—政府關係의 未來方向은 企業이 對政府觀을 정립하는 데 있어 필수적인 요소이기도 하다. 그러나 미래의 방향은 갑자기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의 방향의 연장이나 점진적 修正過程으로 나타나게 되며, 역사적 흐름과 관련된 필연성을 가지고 그 논리적 귀결로 제시되는 것이다(趙東成, 1982: pp.35~38 參照). 따라서 과거의 企業—政府關係의 분석결과는 바로 미래 방향의 지침으로 볼 수 있으며, 특히 앞으로는 기업과 정부의 관계에서 지켜야 할 線이 어디까지인지를 밝히는 데 주력할 것이 요청된다.

둘째, 한국기업은 自己資本에 의해서라기보다는 국내외의 他人資本에 의존하여 성장해 왔다는 사실이 뚜렷한 外面的 特성의 하나로 나타난다.

한국기업은 근원적인 資本蓄積過程이 극히 일약했기 때문에 資金의 출처를 가리지 않고 債債를 늘리는 借金經營을 해 옴으로써 외형적인 팽창을 이룩할 수 있었다. 일제시대에는 극히 영세한 民族資本이 있기는 하였으나 해방후 기업이 생성될 수 있었던 것은 歸屬財產의 불하에서 비롯된 것이며, 6.25동란 후 폐허에서 기업이 재건될 수 있었던 것도 미국으로부터의 계속된 원조와 차관에 힘입은 것이었다. 60년대와 70년대에도 한국기업은 外國資本의 차입은 물론 국내금융매체로부터 각종의 특혜를 입어 급팽창하게 되었다.

企業이 어느정도의 負債를 갖는다는 것은 현대경영의 기본원리의 하나이지만, 한국기업의 경우에는 이 수준을 지나치게 초파한 財務構造의 脆弱性이 정상적인 利潤追求와 競爭을 불가능하게 하고, 자율적·혁신적·장기적 經營方式의 도입을 저해하고, 과다한 資金費用의 압박으로 인하여 종업원에게 적절한 賃金을 지불하지 못하고, 정부를 비롯한 소비자·지역 사회 등 利害關係者 집단에 대하여 社會의 책임을 수행하지 못하는 등의 부작용을 낳게하고 있다는 것이 문제로 지적된다. 과다한 他人資本 의존성은 끝내 不實企業으로 전락하는 위험을 항상 안고 있으므로 이제 한국의 기업들은 그간의 量的 팽창 이상으로 경영의 內實化를 기할 것이 요청된다.

세째, 한국기업의 성장배경을 볼 때 外勢와 國際與件이 크게 작용해 왔다는 사실이 또 하나의 외면적 특성으로 부각된다.

초창기 한국기업의 성립발판은 일본을 위시한 외세에 의한 開化運動의 여파로 이루어졌으며, 해방 후의 美軍政과 60년대와 70년대에 걸친 미국의 계속된 援助와 借款에 힘입어 기업들이 외형적으로 크게 성장하였다. 또 최근까지 外國資本과의 合作 또는 외국단독 投資企業의 등장으로 한국경제와 기업경영은 커다란 영향을 받아 왔다. 그러나 한편 한국기업은

이러한 受動的 측면 외에 정상적인 경영활동이라고는 볼 수 없으나 1940년대 후반의 마카오貿易景氣에 눈을 둔 것을 시발로 하여, 60년대 후반에 越南戰의 개입과 연이은 東南亞에의 진출, 70년대의 中東붐에 편승하는 등 적극적인 자세로 기업의 國際的인 시야를 넓히게 되었다.

우리와 같이 資源이 부족한 나라에서는 편협한 民族主義만을 주장할 수는 없으며, 따라서 기업의 國제화는 이제 하나의 당연한 명제로 인식되고 있다. 우리가 기업의 國際化라고 말할 때는 크게 두가지 측면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하나는 외국의 資本이나 技術, 經營方式이 우리나라에 유입되는 것이고, 또 하나는 우리나라의 자본, 기술, 경영방식이 해외로 진출하는 것이다. 특히, 전자의 경우 즉 넓은 의미에서 볼 때 外勢의 유입면에서 나타날 수 있는 과거와 같은 副作用과 歪曲性은 극소화되어야 한다. 요컨대 한국기업은 自立的 國際화를 도모할 수 있도록 外勢에 대한 분별있는 판단과 國際與件의 변화에 민감히 대응할 수 있도록 경영의 環境適應的 기능을 강화해 나갈 것이 요청된다.

### 〈參 考 資 料〉

- 羅雄培, “企業經營展望과 課題”, 「80年 經濟展望과 政策課題」, 全經聯, 1979.  
大韓商工會議所, 「現代企業의 社會的 責任」, 1980.  
大韓商工會議所, 「市場指向型 經濟의 受容態勢」, 1981.  
東亞日報社, 「東亞年鑑」, 1972.  
東亞日報, “高度成長의 드라마”, 1982. 2. 26.  
東洋經濟新報, 「年刊朝鮮」, 1942.  
朴炳潤, “韓國의 財閥一그 生態·金脈·人脈”, 「新東亞」, 1975, 12月號, 1975.  
朴炳潤, “財界版圖 78년의 亂流”, 「新東亞」, 1978, 12月號, 1978.  
朴炳潤, 「財閥과 政治」, 韓國양서, 1982.  
朴鼎在, 「韓國經濟 100年」, 韓國生產性本部, 1971.  
邊衡尹, 金潤煥, 「韓國經濟論」, 裕豐出版社, 1978.  
三星소식, “韓國民間資本主義發達史 14”, 1979. 7, 1979.  
申相民, “栗山그룹倒產의 衝擊”, 「新東亞」, 1979. 5月號, 1979.  
慎侑根, “韓國企業의 傳統文化的 特性과 組織有效性에 관한 研究(I)(II)”, 「經營論集」,  
서울大學校 經營研究所, 第13卷 3, 4號, 1979.

- 慎佑根·林鍾沅·趙東成, “韓國企業觀의 定立斗 展開方向(1)”, 「經營論集」, 서울대학교 經營研究所, 第16卷 2號, 1982. 6.
- 윤명석·신용하·안병직 外編, 「韓國近代史論 I」, 1977.
- 林鍾哲, “解放後 韓國의 工業發展”, 「經濟論集」, 서울대학교 經營研究所, 第14卷 2號, 1975. 6.
- 全經聯, 「民間經濟白書」, 1980.
- 趙璣濬, 「韓國企業家史」, 博英社, 1974.
- 趙東成, 「韓國綜合貿易商社의 進路」, 서울대학교 經營研究所, 1981.
- 朝鮮銀行調查部, 「朝鮮經濟年報」, 1948.
- 朝鮮總督府, 「朝鮮事情」, 1938.
- 「朝鮮施政二十五年史」, 1935.
- 「最新朝鮮事情要覽」, 1921.
- 閑谷三喜男編, 「韓國の企業經營」, 東京: アジア經濟研究所, 1977.
- 許粹烈, 「日帝下韓國에 있어서 植民地的 工業의 性格에 關한 一研究」, 서울대학교, 1983.
- 洪性園, 「韓國經濟外 美國援助」, 博英社, 1962.
- 黃大錫, 「韓國企業經營論」, 世英社, 1976.
- 黃明水, 「企業家史研究」, 檀國대학교 出版部, 1976.
- 黃一清, 「韓國的 經營管理方案의 發掘」, 大韓商工會議所, 1982.